



울동

질풍가도

한 번 더 나 에 게 질 풍 같 은 용 기 를
5 거 친 파 도 에 도 굴 하 지 않 게
9 드 넓 은 대 지 에 다 시 새 길 회 망 을
13 안 고 탈 려 갈 거 야 너 에 게
17 너 에 게 너 에 게
21 그 래 이 런 내 모 습 게
25 을 러 보 이 고 우 습 게 도 보 일 거 야
29 하 지 만 내 게 주 어 진 무 거 운 운 명 에
33 나 는 다 시 태 이 나 싸 을 거
37 야 한 번



울동

질풍가도

41  2. 게 세 상 에 도 전 하

45  는 게 외 로 을 지 라 도 함 께 해 줄

49  우 정 을 믿 고 있 어

53  한 번 더 나 에 게 질 풍 같

57  은 용 기 를 거 친 파 도 에 도 굴 하 지 않 게

61  드 넓 은 대 지 에 다 시 새

65  길 희 망 을 안 고 달 려 갈 거 야 너 에

69  게 너 에 게 너 에

73  게



울동

내 마음을 가득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수많은 말로 더 외 찬양들을 드렸지만
 Here I am a-gain just look-ing for the words that help me say that
 So ma-ny words, so ma-ny songs, so ma-ny me-to-dies yet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더 시고백하기 원하네
 my hearts is full of love and pray-ers
 All-ow me one more de-cis-ion
 수많은 노래들로
 주님은 나의 사랑
 I must have prayed a thou-sand
 You are the lov-er of my



그 말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
 prayers and ong a hun-dred songs but I just have to say a-gain -
 soul, the cen-ter of my life So I just have to say a-gain -



주 사랑해요 은 말 다 하 여
 Oh how I love You More than words can say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 - - 주 사랑해요
 in the deep-est, heart-felt way - Oh - - - how Lord I love You



울동

내 마음을 가득채운



찬 양 받 아 주 소 서 - -
once a - gain re - ceive my praise - -



주 님 사 랑 다 시 고 백 하 는 새 날 주 심 감 사
Thank You for a brand new day, A brand new chance to stand and say I
Help me find the word to say that Tell You in a brand new way



헤 - - 요 - -
love - - You - -



찬양

그 사랑 주님께 감사하여라

1 A E F#m C#m D
갈 길 찾 지못 - 하고 방 황하 - 던 우리들 - 어 들 고

6 A Bm E7 A E
감 감한 - 곳 에 간 혀있 - 던 우리들 - 하느님 이 어 났냐 - 며

11 F#m C#m D C#m F#m Bm E7 A
대 들 - 던 우리들 - 알 러고 만 했 을 뿐 - 느 끼 지 못 했 던 우리 들

17 F#m C#m D A D C#m F#m
하느님 은 - 우리 를 인 도 하 시 니 하느님 의 사 랑을 -

23 Bm E(sus4) E7 A E F#m C#m
개 달 았 네 그 사 랑 주 님께 - 모두 - 감 사 하 여 라 - 우리 에

29 D C#m F#m Bm E7 A E
개 배 루 신 기 적을 - 모두 찬 양 하 리니 - 그 사 랑 주 님께 - 모두

35 F#m C#m D C#m F#m Bm E A
- 감 사 하 여 라 - 기 썬 노 래 부 르며 - 감 사 하 - 여 라



울동

낮은자의 하느님

C Am7 Dm9/F G7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서기 베풀어 하시고

C Am7 FM7 G7 C G7
작은 일 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C Am7 Dm9/F G7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C Am7 FM7 G7 C C7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F G E7 Am
우리 안에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F G C Bb C7 F G7
낮은자를 높여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E7 Am F D7 G G7
어락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 하시네

C Am F G
찬양 함에 기쁨을 감사 함에 평안

E Am F Fm C
간구 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1. 나 주님 - 의 기쁨 되 - 기 원하네 - - 내 마음을 - 새롭게 하 - 소 - 서 - -
2. 겸손히 - 내 마음 드 - 립 니 - 다 - - - 나의 모 - 든 것 받으 - 소 - 서 - -



새부대 - 가 되게 하 - 여 - 주 - 사 - 주 님의 빛 - 비추게 하 - 소 - 서 - - 내가
나의 맘 - 깨끗게 씻 - 어 - 주 - 사 - 주 의길로 - 행하게 하 - 소 - 서 - -



원 - 하 - 는 - 한 - 가 - 지 주 님의 기쁨 이 - 되는 것 - 내가



원 - 하 - 는 - 한 가 - 지 - - 주 님의 기쁨 이 되는 것 - - -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 내가 나 아가-리다 -
주님 뜻 이아-니면 - 내가 멩 취셔-리다 -
나의 가 고셔-는 것 - 주님 뜻에 있-으니 -
오 주-님- 나 를 이끄-소-셔- 주님
뜻 하 셴 그-곳에 - 나 있 기원함-니-다 -
이 끄 시 는-대로 - 순 종 하 여 살-리-니 -
연 약 한 내-영혼 - 통 하 여 일하-소-셔 -
주님 나 라와- 그 뜻 을 위-하 여 - - 뜻 하
- 오-주-님- 나 를 이끄-소-셔-



찬양

하늘 위에 주님 밖에

A E/A D/A A D/A D/E

하늘 위 에 주 - 님 밖 에 - 내 가

A E/A D/A A9 Dmaj7

5 사 모 합 자 이 세 상 - 에 없 - 네 - 내 맘 과 힘

A2/C# A/C# Asus4/B E7 A Dmaj7 A2/C# A/C#

10 - 은 - 믿 을 수 - 없 네 - 오 직 한 가 - 지 - 그

Asus4/B D6/E D A/C# C#m7 A/C#

15 진 리 를 - 믿 네 - 주 는 나 의 - 힘 이 요 - 주 는 나 의

Bm7 Bm7/E A E/AA A/C# D C#M7 F#m E/F# F#m

19 - 힘 이 요 - 주 는 나 의 - 힘 이 요 - 영 원 히 - 주 를

Bm7 A/C# A/D6/E D6/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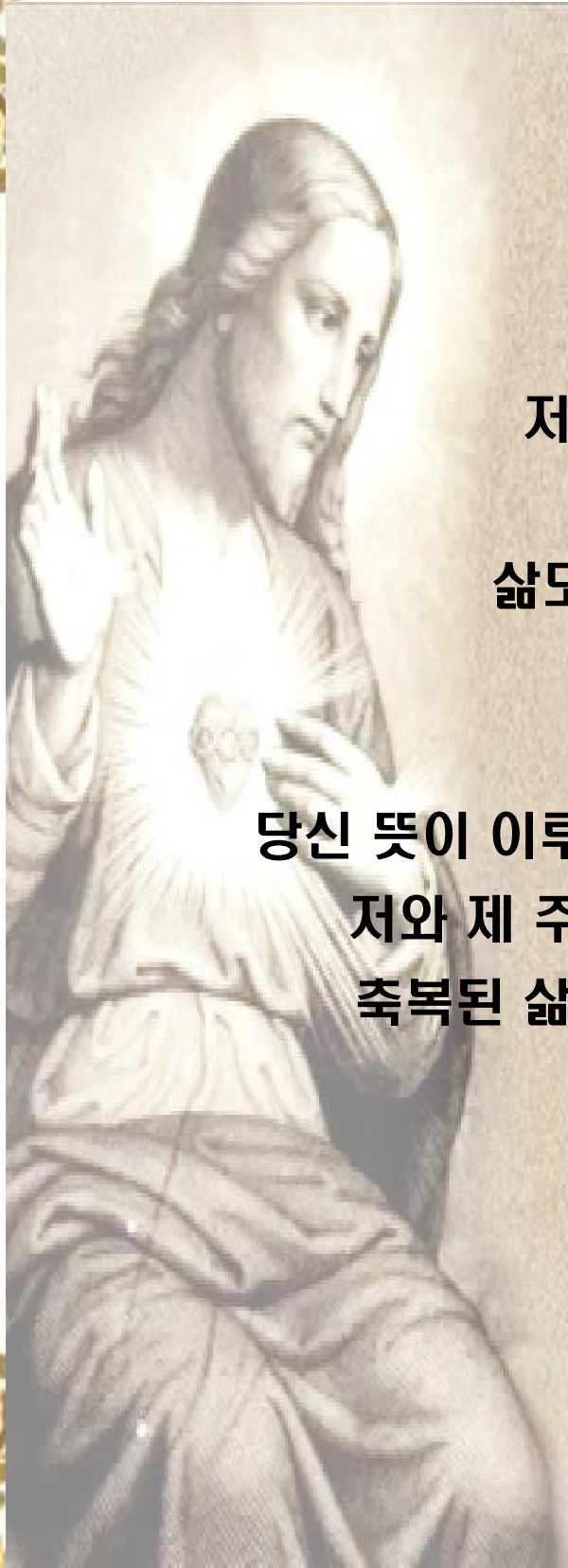
23 의 지 - 하 리 - 주 는 나 의 리 영 원 - 히 -

1 2



성체조배 시작기도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당신은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단순함과 사랑,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당신께 나왔습니다.
아기가 그의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기쁨과 슬픔, 즉 모든 것을 함께 하듯이
당신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위해
여기에 나왔습니다.
지극히 감미로우신 예수님, 저를 당신
자신으로 변형시켜 주소서.
이것이 제가 매일 받는 영성체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성체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
저의 삶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이 저의 주인이시니
삶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행복과
불행도 모두 당신께 바칩니다.**

**저는 다만 모든 것 안에서
당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저와 제 주변의 모든 이가 주님으로 인하여
축복된 삶이 되도록 그들을 기억해 주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성체조배 마침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주님의 성심께
저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봉헌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보살펴 주소서.
저희는 온전히 성심께 의지하고 바라오니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소서.

○ 예수님, 저희가 하는 일에 강복하시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소서.

● 온 세상 어디서나 모든 이가 입을 모아
예수 성심을 찬미하며 사랑과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10월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연중 제 27주일

Agape Youth Group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입당성가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68번 성가]

68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연중



1.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2. 미약한우리 인 - 생 주님을 찾으니
3. 이 세상모든 행 - 복만 족함 없으니



언제나 마음속 - 에 그리며살리라
애뜻한우리 기 - 도 들어주소서
참된행복의 근 - 원 하느님뿐이리



우리의 모든 소 - 망 이뤄지는 그곳 -



영원한천상 행 - 복 누리게하소서



대영광송

-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 하느님의 어린 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 아멘.



제 1 독서

✧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
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
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
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
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
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
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
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 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
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
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
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편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 안에서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며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 나가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가까워진 지구촌을 굽어살피시어, 지구촌 많은 이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여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보편지향기도

3. 생명 조작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인간 생명인 배아가 난임의 대안으로 쓰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소중한 것을 널리 전하여 생명 문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4.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에 함께하는 저희에게 풍성한 은총을 불어 넣어 주시고,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이 날로 성장하여 올해는 기도의 집이 꼭 마련되도록 도와주소서.



봉헌성가

주는 우리의 기쁨

주는 우리의 기쁨

E B/D# C#m F#m B7
주는 우리 의 기쁨 - 우리 생명 우리 의 희망 -

E B/D# C#m A B7 E Fine
주여 당신 없이는 - 우리 아무것도 아 니 리

A E C#m C#m/B A G#7
때때로 우리 삶엔 차감 고 어 두운 밤 이 옵니다

A E A E F#7 B7 D.C. Fine^{al}
주여 당신 벗 되어 - 당신 앞 에 나 아 가 리



영성체송

애가 3,25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성체성가

88.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결코 배고프지 - 않 고



이 잔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으리 라



1.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생명의 빵이니 2.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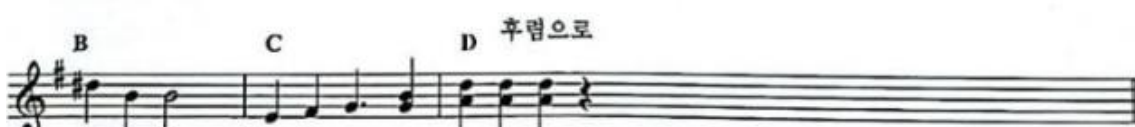
조상들은 만나 먹었지만 이는 하늘이 내려 주신 빵이니



3. 성체 성혈 모셔라 마지막 날에 너희 살게 하리



4. 이 빵 먹는 이 누 구나 영원히 살리 5. 믿음을 갖고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파견성가 나의 기쁨 마리아여

257

나의 기쁨 마리아여

성모

보통 속도로

예수 수도회



1. 나의 기쁨 성 마 리 - 아 나의
 2. 나의 희 망 성 마 리 - 아 나의
 3. 나의 도 움 성 마 리 - 아 나의



어 머 니 시 여 슬 픔 중 의 손 을
 어 머 니 시 여 어 둠 중 중 의 길 을
 어 머 니 시 여 평 화 중 에 머 물



잡 - 아 나 를 위 로 해 주 소 서
 밤 - 혀 나 를 이 끌 어 주 소 서 동 정
 도 - 록 나 를 축 복 해 주 소 서



성 모 마 리 아 내 삶 을 말 겨 드 리



니 늘 인 도 하 여 주 소 서



11월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주님 안에 고요히 머물며 그 분을 고대하여라.” [시편 37,7]

일시: 11월 2일(토) 3pm ~ 6pm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강당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나눔

준비물: 묵주, 미사 도구

문의: (02)6253-3373 / 010-8360-3700



11월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